

# 이병주 『산하』의 다층적 서사의 구성과 의미

정미진(경상대)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3. 다층적 서사의 의미    |
| 2. 다층적 서사의 구성과 특징 | - 개인의 욕망과 역사의 문제 |
|                   | 4. 나오며           |

## 1. 들어가며

이병주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곧잘 엇갈린다. 일제말기와 해방, 6·25전쟁을 가로지르는 뼈아픈 역사에 대한 섬세한 기록을 담고 있는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을 쓴 작가도 이병주<sup>1)</sup>이며, 기존의 문단 관행과는 다른 파격적인 행보<sup>2)</sup>를 보이며 지나치게 통속적이라는 비판에 놓인 작품을 즐기치게 발표한 작가도 이병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설가 이병주에 대한 당대의 관심은 현재의 평가와는 사뭇 다르다

- 
- 1) 이병주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06년 이후이다. 그나마도 초기 단편이나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이와 관련하여 안경환(『이병주와 그의 시대』, 『2009 이병주 하동 국제 문학제 자료집』, 이병주기념사업회, 2009, 36면 참고.)은 다중 다작으로 인한 질적 불균형, 여러 매체 동시 연재로 인한 집중력의 분산, 이중계제, 제목 변경, 작품 일부의 별도 발표 등 문단의 전통과 윤리를 벗어난 출판 행태를 보여 작가의 성실성에 상처로 남았다고 밝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작가에 대한 당대의 관심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설이 여러 매체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산하』<sup>3)</sup>는 연재당시인 1978년 TBC를 통해 라디오 소설로 전파를 타는가 하면, 1987년 MBC에서 8부작 미니시리즈로 제작·방영되기도 했다. 또 연재 당시에도 그렇지만 1978년 3월 동아일보사에 의해 단행본으로 출간된 이후에도 꾸준히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산하』가 발간된 즈음 베스트셀러 소설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고<sup>4)</sup> 그 이후에도 꾸준히 베스트셀러 목록에 한 자리를 차지한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산하』가 꾸준히 읽혔다는 것, 연재가 종료되기도 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많은 독자를 확보했다는 것, 더 나아가 드라마로 제작되었다는 것<sup>5)</sup>은 『산하』에 대한 당대의 관심을 방증한다.

1945년 해방과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까지의 15년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서사의 폭과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하』에 대한 연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간 이루어진 『산하』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광훈<sup>6)</sup>은 『산하』에 대해 “이종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방공간에서 자유당 정권을 거쳐 4·19에 이르기까지의 15년 현대사를 실록 대하소설로 압축”했다고 분석한다. 손혜숙<sup>7)</sup>은 ‘역사인식’이라는 키워드로 이병주 소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간 배제되었던 다양한 작품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특히 『산하』의 경우 우리 역사를 비교적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역사의 한 축이 되는 이승만 정권의 모순과 한계를 날

3) 1974년 1월부터 1979년 8월까지 월간지 <신동아>에 총 68회에 걸쳐 연재되었고, 이후 1985년 6월 동아일보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된다. 이 글은 2006년 한길사에서 간행된 『이병주전집』에 포함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4) 『매일경제』, 1978.5.30.(같은 주 소설부문 베스트셀러 4위는 이병주의 『낙엽』이었다.)

5) 특히 드라마로 제작된 <산하>는 소설에 못지않은 관심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동아일보』(87.7.13)는 드라마 <산하>에 대해 “MBC ‘산하’ 해방직후 정치관 흥미롭게 묘사”했다고 평가한다. (“MBC TV가 지난 6일부터 매주 월요일 밤9시 50분에 방영하는 8부작 미니시리즈 ‘산하’(이병주 원작, 김지일 연출)는 방영시기의 적성환 선택, 치밀한 극적 구성, 뛰어난 주인공의 성격 묘사 및 연기 등이 좋은 조화를 이뤘다.”)

6) 이광훈, 『행간에 문헌 해방공간의 조명』, 『산하』 7, 한길사, 2006, 291~302면.

7) 손혜숙, 『이병주 소설의 ‘역사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카롭게 포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편 추선진<sup>8)</sup>은 이병주의 소설에서 현실이 허구적 장르인 소설로 들어오는 방법을 시기별로 분석한 논문에서 『산하』를 “우연과 운명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한 장편소설”이라 규정한다. “『산하』의 서사는 ‘무식한 이종문의 서사’와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기록’이 함께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가운데, 무식한 노름꾼 이종문이 정치가로 성공한 데에는 비합리적인 우연과 운명이 작용했다고 본다. 이러한 요소에 의해 역사의 흐름이 결정되는 것은 허망한 것이고, 이병주는 그러한 허망한 역사를 기록하고자 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산하』에 대한 최근 논의로는 박병탁<sup>9)</sup>의 논문이 있다. 그는 이병주의 소설 중 『관부연락선』, 『지리산』, 『산하』를 역사소설 3부작으로 상정하고 각 작품을 분석한다. 『산하』에 대해서 “역사적 진실 복원의 작가적 의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소설적 시도”를 한 작품이라고 평가하면서 『산하』를 기층민과 지식인의 실상을 동시에 다루는 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논의는 그간 심도 있게 연구되지 않던 『산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산하』가 가진 의미의 폭을 이종문이라는 인물을 통해 제1공화국의 혼란한 시대상을 보여주고 이승만 정권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비판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어 『산하』가 가지는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듯하다.

한 편의 소설은 단일한 서사로 구성되지 않는다. 장편소설의 경우 복잡구성을 취함으로써 다양한 인물들과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가 교차되기 마련이다. 이병주의 소설들도 그러한데 특히 역사를 소재로 한 소설의 경우<sup>10)</sup> 서사가 세 가지 층위에서 기술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표작으로 잘 알려진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의 경우 서술자인 ‘나’에 의해서 유태림의 서사가, 이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박태영의 서사가 작품의 중심부에 놓인다. 여기에 유태

8) 추선진, 『이병주 소설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9) 박병탁, 『이병주 역사소설의 유형과 의미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0) 이병주 소설을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면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소설(『소설·알렉산드리아』, 『관부연락선』, 『지리산』, 『그해5월』 등)과 대중소설(『낙엽』, 『비창』, 『여인의 백야』, 『서울버마재비』 등)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며,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은 손혜숙(『이병주 대중소설의 갈등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26, 한민족문화연구학회, 2008, 203~205면 참고)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림과 박태영의 행적을 좇아가면서 서사를 전달하고 관망하는 ‘나’와 이규의 서사가 교차한다. 그리고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에서 역사는 단순히 배경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서사의 전면에서 부각되어 나타난다. 즉 역사적 사건을 배경 위에 작가의 상상력으로 탄생된 인물의 서사가 놓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가 하나의 서사로 제시되고, 인물의 서사가 역사적 서사와 평행을 이루며 진행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산하』의 서사 구조도 이와 유사하다. 격동의 역사를 배경으로 부침하는 중심인물 이종문의 서사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사실 기록의 서사, 현실을 관망하고 비판하는 이동식의 서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산하』는 이병주의 소설에서 주로 등장하는 지식인이 아니라 사회 밑바닥을 살았던 ‘이종문’이라는 인물의 서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자기체험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측면에서 변별된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에서는 『산하』의 서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 2. 다층적 서사의 구성과 특징

### 2.1. 기록으로서의 소설 쓰기, 제1공화국의 서사

『산하』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혼란과 격랑의 시대였던 해방과 제1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여실하게 다루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에 항복했고 조선은 일제의 오랜 통치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기간 내내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투쟁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방은 우리 민족의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합군의 2차대전 승전에 의해 주어진 해방이었고, 예기치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혼란한 시기를 맞게 된다. 해방과 함께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할 점령되었고, 해방 직후의 정국은 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등 좌파와 막 활동을 시작한 한국민주당이 중심인 우파의 대립이 본격화되는 추세였다. 이러한 역사의 한가운데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정권을 잡고 1960년

4·19를 계기로 자진 사퇴할 때까지의 서사가 빼곡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충실한 기록은 이병주가 줄곧 추구해 왔던 글쓰기 방식의 연장이다. 실제 이병주는 다양한 에세이와 칼럼을 통해 자신의 글쓰기 행위는 역사의 기록이라는 데 기반을 두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아래는 이병주의 에세이 『문학이란 무엇인가』의 한 부분이다.

“역사가는 정치가를 그 치적으로써 평가하며 기록한다. 문학인은 그 동기로써 정치가를 평가하는 것을 잊지 못한다. 역사가는 성공자와 승리자에게 중점을 두지만 문학은 좌절한 자, 패배한 자를 중시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 이와 같이 나는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을 문학인으로서 자처할 수 있는 사실에 커다란 자랑을 느낀다. 동시에 이 자랑이 자랑일 수 있다면 이상과 같은 문학적 인식을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자각 또한 잊지 않는다. 최후의 승리자는 기록자에게 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며 신념이다.”<sup>11)</sup>

기록으로서의 소설 혹은 기록자로서의 소설가라는 인식은 이병주 소설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었고,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은 그의 문학적 신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병주에게 있어 개인적 체험을 다루는 것은 일제 말기, 모순적이며 치욕스럽기까지 한 학병 체험과 6·25전쟁 중 겪은 이데올로기의 대립 문제, 독재 정권에서의 언론 혹은 개인에 대한 억압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또한 비단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시대의 문제이기도 했으며, 이것이 이병주 문학이 갖는 의미이자 가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sup>12)</sup>

학병 체험과 감옥 체험 등 질곡의 시대에 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모두 겪은 이병주는 감옥에서 만난 사마천을 통해 ‘기록으로서의 문학’, ‘필패의 역사로서의 문학’이라는 인식을 보다 굳건히 확립해 나갔다. 이런 이병주

11) 이 글의 발표시기와 발표지명은 명확하지 않으나 김윤식·김종희 역, 『문학을 위한 변명』(바 이북스, 2010, 134~135면)에서 가져 왔음을 밝혀둔다.

12) 『역사의 그늘, 문학의 길』(한길사, 2008.)에 수록된 이광훈, 『역사와 기록의 문학』/송재영, 『시대 중언의 문학』/이보영, 『역사적 상황과 윤리』/김중희, 『근대사의 격랑을 읽는 문학의 시각』/송하섭, 『사회이식의 소설적 반영』/정찬영,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진실』 등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의 신념은 『산하』에서도 격랑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sup>13)</sup>

『산하』에서 이병주가 역사를 서술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우선 다양한 담론이 그 형식을 유지한 채 서사 내로 들어오는 형태이다.<sup>14)</sup> 이들은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제시되는데, 그것은 실제 인물의 사건 기록이나 증언, 신문 기사인 경우도 있고 허구적 인물의 일기나 메모 형식을 갖기도 한다.

여기서 소설의 흐름을 잠깐 중단하고 여순반란사건의 개요를 적어둘 필요를 느낀다.<sup>15)</sup>

육당 최남선은 3·1운동 30주년을 즈음해서 30년 전 자기가 기초한 독립선언문이 실린 신문에 아래와 같은 글을 썼다.<sup>16)</sup>

거창사건은 그야말로 처참한 민족사의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그 사건의 진상을 김재형 씨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sup>17)</sup>

---

13) 손혜숙은 「이병주 소설의 역사인식 연구」(앞의 글)를 통해 『산하』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실제 인물을 비교하여,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기술되는지를 밝히고 있다. 『산하』에 대해 “역사적 현장을 배경으로, 실존 인물의 서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물들의 목소리가 (작가의 해석과 상상력에 의한) 허구적 서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인 듯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괄호는 글쓴이)

14) 이와 관련하여 손혜숙은 「이병주 소설의 역사서술 전략 연구」에서 (『비평문학』 52호, 한국비평문학회, 2014.) 5·16을 소재로 삼은 이병주 소설을 대상으로 이병주 소설의 역사 서술 전략을 밝힌다. 특히 『그해 5월』에 포함된 결텍스트가 역사적 사건과 평가에 ‘사실성’을 부여한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기록권층에 의해 기록된 공적 역사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영웅 중심의 기존 역사를 비판하고 전복시키기 위한 서사전략으로 작동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텍스트’란 제라르 주네트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로 서사와 함께 동반되는 일련의 자료들을 지칭한다. 글로 된 서사에 덧붙여진 언어를 총칭하는 것으로, 각 장의 제목, 난의 표제, 목차, 서문, 후기, 삽화, 표지와 같이 텍스트에 걸가지로 뻗어 있는 모든 자료들을 말한다. 이렇게 걸가지로 뻗어 있는 모든 자료들은 서사를 경험하는 일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 모두는 서사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H.포터 애벗, 우찬재 외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 지성사, 2010, 69~72면.)

15) 『산하』 4, 172면.

16) 위의 책, 29면.

17) 『산하』 7, 10면.

소설의 서사가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한다 하더라도 소설 장르가 근본적으로 갖게 되는 허구성은 독자의 독서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허구적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 제시되는 사건의 경우, 독자는 그것이 사실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사실이라기보다 허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가 직접 표면에 등장해 서사를 요약 제시할 경우, 서사는 중단되지만 작품을 읽어가는 독자는 서사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작가의 직접 서술은 독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실재가 아닌 순전히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재구성된 역사적 인물의 행위나 대사까지를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sup>18)</sup>

『산하』에서 이승만의 행적이 전기적 사실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당대를 배경으로 기술된 이승만의 내면 의식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독자가, 『산하』가 다루는 역사에 대한 기술을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면 그것은 신문 기사, 사건에 대한 실제 인물의 증언, 메모 등의 장르 삽입과 작가의 직접 서술에 의한 사건의 요약 제시라는 서술 책략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역사와 맞물려 진행되는 인물의 서사를 이해시키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는 한편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역사를 기록하겠다는 이병주 자신의 문학적 신념과도 직접 관련을 맺게 된다.

다시 말해 『산하』에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서사는 중심인물인 이종문의 서사를 가능하게 하는 배경으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하나의 서사를 형성하고 있다. 중심인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서사를 중단해 가면서도 기사나 기록을 활용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세밀하게 제시하려는 노력은 이병주 자신의 문학적 신념에 대한 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독자로 하여금 이병주가 제시하는 역사를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장치로 작용하는 것이다.

18) 웨인 C. 부스(최상규 역, 『소설의 수사학』, 예림기획, 1999, 238~241면 참고)에 따르면 작중 인물에 의해 제공되는 사실이나 요약을 그 인물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단서로 삼아야 할 경우, 그것들은 사실이나 요약이나 묘사로서의 신빙성의 일부를 잃게 된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사실이나 요약의 제시는 작가에 의한 것일 때에 사실을 존속하게 하고 신빙성 있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 2.2. 회색의 사상, 관찰자적 지식인의 서사

한편 이병주 소설의 중심인물은 남성 지식인<sup>19)</sup>인 경우가 많다. 특징적인 것은 단일한 퍼소나의 입을 빌려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서사를 이끌고 있는 인물과 그 주변 인물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거나 역사에 대한 판단과 인식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희<sup>20)</sup>는 이병주의 소설 세계에서 주목해야 할 요체로 해설자의 존재를 꼽으면서, 해설자는 이병주의 여러 소설에 등장하여 보다 더 직접적으로 작가 자신의 체험과 세계 인식을 반영하며 작가는 이 해설자에게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기 자신의 시각을 투영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병주의 소설에서 해설자는 작가 이병주의 분신이고, 따라서 이병주의 역사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잘 알려진 바대로 이병주는 철저한 자유주의자였고, 그것을 소설 속 인물을 통해 구현해냈다. 그러나 이런 이병주의 노력은 회색주의자 내지는 패배주의자라는 오명을 낳기도 하였다. 자신이 한 대답에서 밝힌 것처럼 이병주는 역사가 흑백의 논리에 의한 승리와 패배의 기록으로만 점철되어 가는 상황에서 그 이면을 추구하기 위해 아무도 찾지 않는 ‘회색의 군상’으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여겼다.<sup>21)</sup> 흑백논리에 의한 승패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라고 한다면 흑백논리에 의해 생동하는 인물이 아닌 회색의 사상을 가진 인물을 창조해냄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선명한 어떤 바탕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sup>22)</sup>”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또한 그런 인물의 시야를 통해

19) 흔히 지식인이 주요인물로 등장하면서 지식인의 삶의 방법, 지식인 특유의 문제제기나 해결 과정이 중심사건으로 다루어질 경우 ‘지식인 소설’이라 부른다. 조남현은 지식인을 등장시키는 이유를 작가의 자기성찰 욕구가 높아 삶·시대·사회·사상 등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자각 때문이라고 밝힌다. (조남현, 『한국지식인소설연구』, 일지사, 1984, 11~13면, 135면 참고.)

이병주 소설의 남성 주체는 대부분 지식인이다. 『소설·알렉산드리아』의 형, 『관부연락선』의 유태립과 이형식, 『지리산』의 주인공 박태영과 하준규, 이규, 권창혁, 하영근, 『행복어사전』의 서재필 등은 모두 당대의 지식인이며, 이들은 모두 역사에 희생당하는 개인을 표상한다.

20) 김종희, 『이병주의 『소설·알렉산드리아』 고찰』, 『비교한국학』 16,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175면.

21) 남재희·이병주, 『회색군상의 논리』, 『세대』, 1974, 242면.

22) 위의 글.

역사를 논평하게 하고 다시 기록하게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기존의 역사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산하』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이동식이다. 이동식은 이종문의 친구의 아들인 설창규와 같이 학병을 지낸 연유로 이종문의 집에서 하숙을 하며 인연을 맺는다. 이동식의 서사는 이종문과의 관련 속에서 진행되지만 이종문을 객관적인 견지에서 서술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제1공화국의 상황을 지식인의 입장에서 해설하기도 한다.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면 모조리 사이비철학으로 모는 공산주의자들의 독선도 물론 견딜 수 없었지만, 반공주의를 내세우기만 하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전한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풍조에 편승해 있는 교육계의 실정도 그로서 견디어낼 수가 없었다.

응당 공산주의, 아니 마르크스의 학설을 비판해야 할 대목에 이르러선 절대적인 권권이 탄압하고 있는 시국에 아첨하는 것 같아서 말끝을 흐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응당 마르크스의 학설을 옳다고 해야 할 대목에서는 신체적인 불안을 느껴 흐지부지해야만 하는, 그런 어색한 상황을 매일매일 겪어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이었던 것이다.<sup>23)</sup>

이동식은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엘리트로 공산당선언을 읽고도 “홍분은커녕 조그마한 감동도 얻지 못”하며, “우익들에게겐 생각을 미쳐보기도 싫”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일본군의 쇄사슬에서 풀려나온 학병동맹의 친구들이 우익의 테러에 처참하게 죽어간 것을 생각”하면 “간이 떨려 견딜 수가 없었”던 때문이다. 지난한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특정 이데올로기를 선택하는 것도, 적절한 포즈를 취하지 않는 것도 고통이었던 때문에 “세상사에 관한 관심은 포기하고” 있는 인물<sup>24)</sup>이 이동식이다. 실제로 이병주는 자신의 학병체험을 작품 곳곳에 녹여내어 그것이 우리 민족뿐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뼈아픈 과거였음을 감추지 않는다. 학병에 갈 당시 자신의 민족의식, 세계관, 역사관이 빈약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며 자기비판을 서슴지 않기도 한다.<sup>25)</sup> 또 자

23) 『산하』 5, 49~50쪽.

24) 정미진, 『이병주의 소설에 나타난 종교의 의미』, 『국어문학』 58집, 국어문화회, 2015, 459면.

25) 송우혜, 『이병주가 본 이후라』, 『마당』, 1984. 11, 58면.

신과 비슷한 세대의 경우 불완전한 사회 분위기와 체제 속에 명확한 태도를 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태도를 취하지 못했다고 고백한다.<sup>26)</sup> 이병주 자신이 말한 바처럼 올바른 세계관과 역사관이 채 싹트기도 전에 급작스럽게 해방을 맞이하고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야 했던 학병세대가 어떤 사상을 쉽게 선택할 수도, 그 선택을 온전히 유지하기도 힘들었을 것임은 짐작 가능하다.

생명이란 것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갖가지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상, 얼마든지 추하고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사상,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여 죽어야 할 운명이란 것, 전쟁을 일으키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두뇌 속에 있는 불가사의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사고의 메커니즘!<sup>27)</sup>

한편 6·25가 발발하자 이동식은 이종문이 마련한 자동차를 타고 피난을 가는 도중 길거리를 걷고 있는 피난민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한다. 이동식은 오로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추함과 비참함을 감수하고 피난을 떠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려 작정한 사람들의 사고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다시 자신의 욕망을 이뤄줄 힘을 가진 이승만을 종교와 같이 숭배하고 있는 이종문과, 불순한 야심으로 전쟁을 시작한 김일성이 의식의 차원에서 같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모두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여 죽어야 할 운명”에 놓여 있을 뿐이라는 것이 이동식의 사상이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동식은 시대를 증언하거나 비판한다.

### 2.3. 운명의 역사, 욕망하는 인물의 서사

『산하』는 무식한 노름꾼이었던 이종문이 정치권력의 핵심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는 만큼 해방과 6·25전쟁 과정 안에서 펼쳐지는 이종문의 부침이 서사의 중심에 놓인다. 여기서 이종문은 이병주의 다른 인물들

26) 남재희·이병주, 앞의 글, 239면.

27) 『산하』 6, 104면.

이 그런 것처럼 온전히 허구적인 인물은 아니다. 이광훈이 밝혔듯 “자유당 시절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업고 건설업계를 좌지우지하며 자유당 국회의원 까지 지낸 실재 인물”<sup>28)</sup> 이용범을 모델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9)</sup> 그렇지만 실재 인물 이용범을 서사에 그대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이라는 거대 권력을 배경으로 펼쳐진 정치적 행보와 일부 정황들만을 선별적으로 가져오고 있을 뿐이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심화되는 이념의 갈등으로 해방 이후 한반도의 정세는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다. 그러나 『산하』의 중심인물 이종문은 해방이라거나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치 혹은 이념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한반도가 억압에서 놓여난 벽찬 환희의 순간에도 돼지 판 돈을 밀천으로 투전에 열중하고 있었다. “해방이고 달방이고” 이종문에게 중요한 것은 노름판에서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자신이 판 돈을 지키는 일이다. 해방이 이종문에게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은 일본 순사 사사키를 의식하지 않고 “외고 펴고 노름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을 뿐이다. 그런 이종문은 해방이 된 그날 그 시간부터 자기 노름의 꾀발이 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막연히 “서울에 가기만 하면 기막힌 운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데까지 생각이 이어진 이종문은 그 길로 즉시 아내와 두 아들을 뒤로 한 채 서울로 향한다.

이후 서울에서 펼쳐지는 이종문의 서사는 욕망과 운이 교묘하게 맞물려 펼쳐진다. 상경하는 기차 안에서 이종문은 차진회라는 여자를 만나 해방 정세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된다. 이종문의 운명을 결정지는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듣게 된 것도 기차 안이다. 기차 안의 우연은 또 다른 운명으로 이어지

28) 이광훈, 앞의 글, 297면.

29) 이용범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불우한 환경에서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성장하다가 20세부터 토건업에 뛰어들었고, 1946년 6월경 마산시에서 대동공업주식회사를 창설해 사장으로 취임한다. 토건업을 운영하던 중 1955년 12월경에는 서울 소재 국동연료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사장으로 취임하여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정계에 투신하여 1954년 1월경 당시 집권당이던 자유당에 입당하고 경남 위원장 및 창원군당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1957년 제3대, 1958년 제4대 민의원 의원으로 당선되어 재임하다가 1960년 4·19혁명 이후 전시 자유당 간부 및 민의원 의원직을 사임한다. 국회의원 재임당시 창원군 및 마산시 일원이 ‘이용범 왕국’으로, 그가 거주하던 오동동 거주지는 ‘오동동경무대’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3·15마산의거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정경유착의 원조라는 비판을 받았다.(김주완, 『호호 세력의 뿌리』, 불휘, 2005, 137~148면 참고.)

는데, 남성적 욕망으로 차진희에게 치근대던 이종문이 이로 인해 독립투사 양근환<sup>30)</sup>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양근환과의 만남은 국내 정세와 시대감각을 익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자신의 사업과 정치 인생에 멘토 역할을 하는 문창곡과 성철주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특히 이승만과의 만남이 성사된 데에도 이런 반복적인 우연이 작용한다. 차진희의 뒤를 쫓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양근환을 욕보였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공산당 본부나 다름없는 정판사 정문에 나붙은 이승만 비방 벽보를 찢어 공산당원들에게 매를 맞는다. 이런 이종문의 시련은 곧 운으로 뒤바뀌는데 매를 맞은 덕분에 양근환을 만나고, 이승만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그는 “두들겨 맞기만 하면 운이 트인다.”라는 믿음을 가지기에 이른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지은 것을 운이라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종문은 오로지 두 가지 신념을 바탕으로 행동하는데, 그 중 하나는 ‘이승만’이고 나머지 하나는 ‘돈’이다. 막연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들으며 “이승만과 자기와는 언제 어디서고 깊은 인연이 맺어질 것이란 믿음 같은 것이 가슴 밑바닥에 고이는 것을 느”낀 이종문은 서울에 와 노름을 해서 처음 번 돈과 아편을 판 돈으로 이승만에게 정치자금-쌀 값이라는 명목으로-을 꼬박꼬박 보내고, 이승만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심을 다한다. 운명에 대한 막연한 희망과 그에 대한 충실성 덕분에 이종문은 사업가로 승승장구하게 된다.

“비야, 올라몬 석 달 열흘만 쏟아져라. 방천이란 방천, 다리란 다리는 모조리 떠내려가라. 이종문이 방천을 만들고 다리를 놓아줄까. 이종문이 살판난다…….”<sup>31)</sup>

대구에서 난리가 나고 고향인 경남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들어도  
“제기랄, 빨갱이들 어지간히 지랄하는구나.”

30) 양근환(1894~1950)은 실제 인물로 1921년 친일단체 국민협회의 회장인 민원식을 처단한 것으로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이다.

31) 『산하』 2, 123면.

하고 배짱을 부렸을 뿐 거의 무관심했다.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가 벌여놓은 공사가 잘돼서 돈이 벌리기만 하면 그만이었다.<sup>32)</sup>

‘가만 본게 이 전쟁은 이종문을 부자 맹글아줄라고 일어난 전쟁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판이니 그의 입 언저리에서 웃음이 떠날 겨를이 없는 것은 당연했다.<sup>33)</sup>

이종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욕망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고 욕망의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종문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집을 잃고 길을 잃어도,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고 있어도 이종문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종문은 서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종문의 서사는 순전히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우연에 의해 정치적 것과 관련을 맺게 되고, 결국에는 운으로 작용하게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이종문은 이병주 소설의 주요 인물과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된다. 이병주는 소설에서 대개 남성 지식인을 서사의 중심에 내세워 그들이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과 대응 태도를 세밀하게 제시하는 한편 역사가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관계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여타 작품에서 이병주의 인물이 역사의 파고 속에서 희생당하는 무력한 개인을 표상한다면, 이종문이라는 인물은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암울한 시대 상황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영민함을 보인다. 그러나 이종문의 성공 이면에는 매관매직, 부정축재, 부정선거라는 비판적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승만을 등에 업은 이종문의 성공은 온갖 비리들로 얼룩진 것이었기에 이승만 정권이 쇠락과 함께 이종문의 시대 역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

32) 위의 책, 227~228면.

33) 『산하』 6, 88면.

### 3. 다층적 서사의 의미-개인의 욕망과 역사의 문제

『산하』는 결텍스트를 활용하여 역사 기술의 사실성에 무게를 두는 한편 불합리한 시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지식인 이동식의 서사를 통해 역사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근대사의 파고를 보다 사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여기에 욕망과 운명의 힘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의 서사를 핵심에 놓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종문’은 이병주 소설의 다른 인물과는 확연한 차이를 가지는 인물이다. 유태림과 박태영이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에 짓눌려 소리 없이 사라지고, 이형식과 이규, 이동식이 끔찍한 역사를 오롯이 지켜보면서도 행동하지 못하고 절망한 것과 다르게 폭압적인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낸 인물이다. 그러므로 이종문이라는 인물이 함의하고 있는 것을 어두운 역사가 만들어낸 부정적 인간 유형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결론일 것이다.

무식한 노름꾼에 불과했던 이종문은 시대를 읽어내는 일견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sup>34)</sup>, 그것은 작가 이병주가 갖는 시대 인식과 종종 겹치기도 한다.

“국치일 기념대회에 안 나갔다고 꾸지람이신디 선생님 절 좀 봐주이소. 국치일은 한일합방한 날이람서요. 일본놈에서 욱 먹은 날이라고 그래 국치일이라고 한담서요. 생각해보이소. 지금 국치일 들먹이게 됐습니꺼. 어느 놈은 쟁장, 미국놈 똥을 못 빨아먹어서 야단이고, 빨갱이는 나라를 아라사에 팔아먹을 라꼬 야단이고, 그래갖고 매일 부끄러운 짓만 하고 있는디 그런 것 말리지 못하고. 쟁장, 서울 한구석에 모여 국치일 기념이니 뭐니 하는 건 웃기는 일 아님니꺼. (...) 한일합방을 반대하고 40여 년을 항일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이승만 박사를 몰라보는 것만도 뭇한디 악질반동이란 욱까지 예사로 퍼붓는 놈들이 우굴우굴하는 판에 국치일 기념을 하몬 우찌 된다는김니꺼.”<sup>35)</sup>

34) 여순반란사건으로 골치를 썩고 있는 이승만에게 이종문은 싱글거리는 얼굴로 나타나 ‘여순 반란사건은 대한민국의 복’이며, ‘철저하게 빨갱이를 없애버리라는 옥황상제의 지시’이며 그것이 우리나라의 ‘운’이라고 말한다.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반공에 대한 의지가 철저했던 이승만에게는 적절한 조언이다.(실제 여순반란사건 이후 이승만은 좌익 세력 색출을 위한 국가보안법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좌익 탄압을 시작하고 반공체제를 강화했다.)

양근환이 ‘국치일 기념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종문을 질책하자 이종문은 문창곡에게 전화로 변명을 한다. “어느 놈은 미국놈 똥을 못 빨아먹어서 야단이고, 빨갱이는 나라를 아라사에 팔아먹을라꼬 야단”인 상황에 국치일 기념 대회는 “웃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해방 직후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 국면에 있었던 국내 상황을 짚고 강렬하게 표현한 이종문의 대사는 이병주로 하여금 옥고를 치르게 했던 논설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

무장을 엄하게 한 장정이 한편은 북으로 한편은 남으로 경계의 눈을 부릅뜨고 있다.

누가 누구를 경계하는 것이냐?

어디로 향한 총부리냐?

무엇을 하자는 무장이냐?(…)

해산진에서 제주도까지 이 아담한 강토가 판도로서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나라들처럼 복된 민주주의를 키워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되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서 1961년의 해를 활용해야만 한다. 통일을 위해서 민족의 전 역량을 집결하자!

이 비원 성취를 위해서 민족의 정열을 집결하자!<sup>36)</sup>

이승만 정권이 권력의 유지를 위해 비민주적인 부정선거를 저지르자 이에 반발하던 학생과 시민들은 마침내 거리로 뛰쳐나온다. 4·19로 인해 이승만 정권이 자진 사퇴하고 마침내 독재체제에서 해방되자 국내 정세는 잠시나마 안정되어 갔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국제신보』 주필로 근무하던 이병주는 1961년 『국제신보』 연두사를 통해 ‘통일’의 중요성과 의지를 강조한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이병주는 반공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다. 그는 해방과 6·25를 거치는 동안 인민군과 국군에게 각각 고초를 겪는 등<sup>37)</sup>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했으며 이

35) 『산하』 2, 191면.

36) 이병주, ‘통일에 민족역량을 총집결하자’, 『국제신보』 年頭辭, 1961. 1. 1.

37) 이병주는 6·25 당시 진주가 함락됨에 따라 인민군에 의해 ‘경남 문화 단체 총연맹 위원장’ 등의 감투를 써야했고, 이는 진주 수복 이후 부역했다는 빌미로 제공되어 고초를 겪어야 했다.(송우혜, 앞의 글, 58~59면.)

런 경험들은 이병주로 하여금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를 불러일으켰고, 이데올로기에 앞서는 것이 인간이라는 인식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병주만이 가진 독특성이 아니라 당시 지식인의 일반적인 경향에 다름 아니며,<sup>38)</sup> 이는 곧 『산하』에서 이병주의 분신인 이동식에게서도 드러난다.

이동식의 생각으로 당면한 민족의 최대 문제는 38선이고 남북관계인 것이다. 38선 문제 이상으로 무슨 절실한 문제가 있단 말인가. 38선을 두고 어떻게 자주 독립이 가능하단 말인가. 38선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진정으로 민족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첫째 38선에 대한 소신을 밝혔어야 옳았다.<sup>39)</sup>

이동식은 김구의 죽음으로 비통함에 빠진다. 김구의 죽음을 목도한 이동식은 김구가 쓴 ‘사랑하는 삼천만 동포에게’라는 호소문을 읽으며 “민족, 민족하고 얼붙하듯 들먹인 선생인만큼 그분을 통해 민족지도자로서의 민족적인 한계를 느껴야 했다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동식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남과 북으로 나뉜 민족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통일이 최우선 과제이며 따라서 통일이 된 후에야 자주독립도, 민주주의도 가능하다는 이동식의 인식은 곧 이병주의 인식이기도 하다.

한편 이병주는 이종문과 이승만의 공통점을 송남수의 입을 빌려 직접 밝히며 두 인물을 연결 짓는다. 송남수는 이종문과 이승만이 철저한 마키아벨리스트라는 점에서 닮았다고 평하는데,<sup>40)</sup> 송남수가 이종문과 이승만의 공통점을

38) 『대통령들의 초상』(서당, 1991, 52면.)에서 이병주는 “대부분 인텔리들은 극우도 극좌도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좌우 합작으로 인한 온건한 정부가 소원일 때 이승만의 완고함은 솔직한 얘기로 거부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다. 설혹 공산당과의 합작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김구·김규식을 포용한 채 여운형의 세력과 합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미련처럼 지식인의 뇌리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설익은 정치인식이 빛은 환상이었다는 것을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나는 깨닫게 되었다.”고 기술한다.

39) 『산하』 5, 95~96면.

40) 이병주 『대통령들의 초상』, 앞의 책, 31~43면)는 이승만 대통령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카리스마와 마키아벨리즘을 꼽으면서, 이승만은 카리스마와 마키아벨리즘이 조화를 이루는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로 꼽은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극성과 실천력이다. 이런 적극성과 실천력이 없었다면 이종문과 이승만의 관계는 맺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종문의 운명이 것처럼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종문의 운명은 해방을 시작으로 변화하기 시작해 독립운동가로 미국에 머무르던 이승만이 한국으로 돌아와 정권을 잡고 득세하면서 확연히 달라진다. 노름꾼이었던 이종문은 돈에 대한 충실한 욕망과 이승만이라는 권력을 배경으로 제1공화국을 지나는 동안 성공한 사업가이자 정치인으로 절정을 맞게 된다. 그러나 이승만과 함께 시작된 운은 이승만의 쇠락과 함께 끝을 맞게 된다. 이렇듯 나란히 병치된 이종문과 이승만의 서사는 삶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운명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것이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까지로 연결된다.

이러한 개인의 욕망과 역사의 문제에 관한 이병주의 인식은 『산하』의 서두 부분을 통해 보다 확연하게 드러난다. 『산하』는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항복 선언에 대한 트루먼, 스탈린, 처칠, 드골, 모택동의 심경을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들은 국내외 정세와 관련해 각기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생각의 근저에 있는 것은 ‘자국’으로 포장된 ‘자신’의 이익이거나 자신의 명예를 지켜내는 방편에 관한 것이다. 반면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나라의 주장인 네루, 호치민, 우누 등은 각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병주는 “김구와 이승만이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겨레와 조국을 사랑한 것도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한다.”<sup>41)</sup>라고 서술함으로써 민족의 이데올로기 싸움 앞에서 허망하게 죽임을 당한 김구도, 그 싸움에서 승기를 잡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던 이승만도 결국 순수하게 겨레와 조국에 대한 사랑만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인식을 감추지 않는다.

이는 다시 ‘무식쟁이에 노름꾼’이었던 이종문이 자신의 부귀와 영달을 좇는 장면과 교차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놓인 자리가 어떠한 개인은 그저 자신의 욕망과 신념을 지키려고 애쓸 뿐이라는 것이 이병주의 결론이 아닐까 한다.<sup>42)</sup> 이병주는 이종문과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빚어내는 서사를 병치시켜

41) 『산하』 1, 12면.

42) 이러한 인식은 사업가로 정치에 뛰어난 부산 출신 사업가 장도근의 입을 통해 직접 기술되기도 한다.

연결함으로써 개인적인 욕망과 신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임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병주는 『산하』에서 역사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기록뿐 아니라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겠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민족의 발전에 대한 개개인의 희생이나 사명감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일 수도 있음을 이종문과 이승만의 서사를 병치하여 드러내고, 개인의 욕망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는 허망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는 『산하』의 결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독재자 이승만은 타국에서 죽고, 하늘을 찌를 정도의 세도를 누리던 이종문 또한 쓸쓸한 죽음을 맞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종문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평양에서 가져온 수십억 원어치의 금괴 역시 세월의 흐름 속에 영원히 묻히게 되는데, 이병주는 이런 역사를 “아아, 이 산하! 이 땅에 생을 받은 사람이면 좋거나 나쁘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모두 이 산하로 화하는 것이다. 이미 이종문은 산하로 되어버렸다. 살아 있는 사람은 일단 산을 내려가야 하는 것이다.”<sup>43)</sup>라고 기술한다. 욕망의 크기나 시대에 미친 영향력과는 상관없이 한 사람의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고 종내는 기록으로 남을 뿐이라는 인식. 역사로 기록된 이승만도, 소리 없이 사라진 이종문도 그저 산하로 화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통해 이병주가 말하는 역사는 허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많고 또 많은 사명을 지니고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인 흔히 쓰이는 오소독스한 역사의식이 반드시 역사 그 자체를 옳게 전하지는 못하는 면이 많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도자 중심이거나 혹은 정권 중심으로 내려간다는지 또는 영웅주의적인 것으로 나타

---

“선거연설은 어떻게 합니까?”

이동석이 흥미가 없지도 않아 이렇게 물어보았다.

“연설? 마구 털어놓지, 별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 해싸도 국회의원이 될라쿠는 건 제 잘 도리 라꼬 될라쿠는겁니다. 나라를 위한다꼬? 천만의 말씀. 민족을 위한다꼬? 천만의 말씀. 국회가 아무리 떠든다꼬 정치가 잘 됩니까? 이승만 대통령 고집 꺾을 수 있습니까? 하기가 자기도 잘되고 나라가 잘되몬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을겁니다. 나름대로 나라 잘되게 안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될라꼬, 우선 그 욕심으로 국회의원 할라쿠는기지 별수 있소?(『산하』 7, 118면.)

43) 『산하』 7, 289면.

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배치되는 요소가 있고, 지식인의 고민이 있고, 서민의 애환이 있고, 하는 게 아쉽니까? 우리가 역사 그 자체를 배경으로 볼 때 그것은 유형화된, 정리된 일종의 문서로서 생생한 민족의 슬픔이라든지 인간의 애환이나 기쁨 등등을 알뜰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설은 그런 역사의 뒤에서 생략되어버린 인간의 슬픔, 인생의 실상, 민족의 애환 등을 그려서 나타내주는 것이 그것의 큰 역할이라 하겠습니다.<sup>44)</sup>

이병주는 소설을 통해 역사라는 거대 담론 뒤에 가려진 ‘인간’의 삶을 다루려고 했으며, 그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인간의 욕망과 신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산하』를 통해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병주의 역사 소재 소설은 다층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은 대부분 세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기록자로서의 소설 쓰기, 특히 역사가 놓치기 쉬운 인간의 삶을 다각도에서 조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산하』의 다층적 서사는 보다 확장된 의미를 갖는다. 이병주는 단순히 혼란한 시대를 배경으로 출세하고 몰락했던 한 인물의 삶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폭압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한 대통령과 그의 시대에 대한 비판만을 다루려 했던 것이 아니다. 욕망의 성취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종문의 서사를 중심으로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역사적 서사를 병치하고, 회색의 사상으로 대표되는 이동식의 서사를 배치하는 다층적 서사 구성은 이야기 전개 차원에서 단순하게 접합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주제를 드러내는 서사 전략의 일환이다.

#### 4. 나오며

이 글에서는 이병주의 대하장편소설 『산하』의 다층적 서사 구성을 실제 인물과 사건이 주를 이루는 기록적 서사, 또 다른 인물의 서사와 역사를 전달하고 비판하는 지식인 이동식의 서사, 격동의 역사를 배경으로 부침하는 이종문

44) 남재희·이병주, 앞의 글, 237면.

의 서사로 나누어 접근하여 『산하』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병주는 『산하』에서 역사를 다룰 때 사실에 근접하기 위해 다양한 담론을 활용하였다. 신문기사, 증언, 메모, 일기 등은 그 형식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서사 내로 들어왔고 그것은 작가의 직접 요약이라는 형태와 더해져 서사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강화했다. 한편, 이동식의 서사는 명분 없는 이데올로기에 회의적인 지식인을 통해 암울한 시대를 냉소적으로, 또 때로는 담담하게 전달하며 이병주가 시대를 읽는 방식을 직접 언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산하』를 보다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종문이라는 인물이 갖는 특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종문은 이병주 소설의 다른 인물과는 출신 성분부터 다르다. 글씨를 모를 정도로 무식한 이 인물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데 여기에 우연의 작용으로 성공에 이른다. 여타 지식인들이 시대에 절망하고 행동하기를 거부했다면 이종문은 욕망의 성취를 위해 시대의 불행을 자신의 기회로 탈바꿈하는 적극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종문이라는 인물이 서사 내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종문은 불행한 역사가 만들어낸 부정적 인간 유형의 상징이나, 불합리한 시대의 역사를 비판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기획된 인물이 아니다. 그것은 무식한 노름꾼에 불과했던 이종문이 가지고 있는 시대에 대한 감각이 당대 지식인을 대표하는 이동식의 시대 인식, 더 나아가 이병주가 갖는 시대 인식과 겹친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결국 이병주가 이종문이라는 인물의 서사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민족적인 사명에 앞서는 것이 개인의 욕망이라는 인식과 한 사람의 맹목적 신념이 가져오는 운명, 즉 역사의 변화에 대한 기록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승만의 서사와 병치를 이루면서 개인의 문제에서 시대의 증언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 하겠다. 결국 『산하』의 다층적 서사는 역사 자체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에 덧붙여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이병주의 인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 이병주, 『산하』 1~7, 한길사, 2006.  
이병주, 『통일에 민족역량을 총집결하자』, 『국제신보』 年頭辭, 1961.1.1.  
——, 『대통령들의 초상』, 서당, 1991.  
——, 김윤식·김종희 역, 『문학을 위한 변명』, 바이북스, 2013.  
남재희·이병주, 『“회색군상”의 논리』, 『세대』, 1974.

### 2. 논저

- 김윤식·임현영·김종희, 『역사의 그늘, 문학의 길』, 한길사, 2008.  
김윤식, 『황용주의 학병세대』, 『2014년 이병주문학 학술세미나』, 이병주기념사업회, 2014.  
김종희, 『이병주의 「소설·알렉산드리아」 고찰』, 『비교한국학』 16,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김주완, 『토호세력의 뿌리』, 불휘, 2005.  
박병탁, 『이병주 역사소설의 유형과 의미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손혜숙, 『이병주 대중소설의 갈등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26, 한민족문화연구학회, 2008.  
——, 『이병주 소설의 ‘역사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병주 소설의 역사서술 전략 연구』, 『비평문학』 52호, 한국비평문학회, 2014.  
송우혜, 『이병주가 본 이후락』, 『마당』, 1984.11.  
안경환, 『이병주와 그의 시대』, 『2009 이병주하동국제문학제자료집』, 이병주기념사업회, 2009.  
이광훈, 『해간에 문헌 해방공간의 조명』, 『산하』 7, 한길사, 2006.  
정미진, 『이병주의 소설에 나타난 종교의 의미』, 『국어문학』 58집, 국어문학회, 2015.

- 조남현, 『한국지식인소설연구』, 일지사, 1984.
- 추선진, 『이병주 소설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H.포터 애벗,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 지성사, 2010.
- 웨인 C. 부스, 최상규 역, 『소설의 수사학』, 예림기획, 1999.
- 『매일경제』, 1978.5.30.
- 『동아일보』, 1987.7.13.

## 【국문초록】

이 글은 이병주의 『산하』의 서사 구성을 실제 인물과 사건이 주를 이루는 기록적 서사, 관찰자적 지식인의 서사, 욕망과 신념으로 운명을 만들었던 이종문의 서사로 나누어 접근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병주는 『산하』에서 역사를 다룰 때 사실에 근접하기 위해 다양한 담론을 활용하였다. 신문기사, 증언, 메모, 일기 등은 그 형식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서사 내로 들어왔고 그것은 작가의 직접 요약이라는 형태와 더해져 서사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강화했다. 한편, 작가 이병주의 분신이자 회색의 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지식인 이동식의 서사는 암울한 시대를 해설하는 동시에 이병주가 시대를 읽는 방식을 직접 언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역사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이종문의 서사를 통해 욕망과 운명이 한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산하』의 이종문은 단순히 제1공화국의 부패상을 드러내기 위해 기획된 인물이 아니다. 이종문이 가지고 있는 시대에 대한 감각이 당대 지식인을 대표하는 이동식과 작가 이병주의 시대 인식과 겹친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병주가 이종문이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 관계이며, 이는 이승만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서사와 병치를 이루어 개인의 문제에서 시대의 증언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게 된다. 그것은 또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민족의 발전에 투신하는 개인의 희생이나 사명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일 수도 있다는 이병주의 인식을 보여준다. 결국 『산하』의 다층적 서사 구성은 역사 자체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에 덧붙여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이병주의 인식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하겠다.

주제어: 이병주, 『산하』, 다층적 서사, 기록, 지식인, 욕망, 운명, 역사

【Abstracts】

## A Study on Composition and Meaning of Multi-layered Narration in Lee, Byungju's 『San-Ha』

Jeong Mi-jin

This writing aims at clarifying the meaning through the approach by dividing the narration composition of Lee, Byungju's 『San-Ha』 into record-based narration, an observer's narration and an intellectual's narration, in which a real person and events feature, and the narration of Lee, Jongmun who made a destiny out of desires and belief.

Lee, Byungju utilized various discourses in a bid to come close to a fact when addressing history in his work 『San-Ha』. Lee, Byungju embraced newspaper articles, testimonies, memos and diaries, etc. within his narration in an untouched state of their form, which intensified reliability in narration itself with the addition of the form of a writer's personal summing-up. Meanwhile, the narration of the writer Lee, Byungju's alter ego and also an intellectual Lee, Dongsik, who nicely exposes fence-sitting thoughts, plays a role in commenting on the dismal period and directly declaring Lee, Byungju's method of reading the era in person at the same time. This provides an opportunity to have a new understanding of history to readers. Here, through the narration by Lee, Jongmun, Lee, Byungju is showing the relationship of an influence of a desire and destiny having on

a person's life.

Lee, Jongmun appearing in 『San-Ha』 is not a planned person in order to expose the aspect of corruption of the first Republic of Korea. Instead, it is learned that Lee, Jongmun's sense of the times is overlapped with the awareness of the times possessed by Lee, Dongsik who represented intellectuals of the day and a writer Lee, Byungju. What Lee, Byungju tried to show through the character named Lee, Jongmun is the relationship of the influence of a human's desire having on a human's life, which forms juxtaposition with the narration of a historical figure-Synman Rhee, being expanded into the testimony of the times from a personal matter in its meaning. It means that what moves history might be a personal desire other than a person's sacrifice or mission dedicating oneself to national development. After all, the multi-layered narration of 『San-Ha』 comes to play a role in exposing Lee, Byungju's awareness of the method, through which history forms, in addition to the meaning that the multi-layered narration is the record of history itself.

Key words: Lee, Byungju, 『San-Ha』, Multi-layered Narration, Record, Intellectual, Desire, Destiny, History

이 논문은 2015년 7월 6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7월 2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8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